

제3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발표문(2026년 2월21일, 민족문학사연구소: 타자로서의 한국문학과 문학사 교육)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 AI 시대 고전문학사 교육의 방향에 관한 모색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류인태

이야기 순서

들어가며: 고전문학 ‘향유’와 ‘교육’의 간극에 관하여

① 현황: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과 몇 가지 딜레마

② 진단: 고전문학사 경계의 확장과 방법론의 전환 요청

③ 제언: AI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쓰기로서 데이터 편찬

나오며: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이야기 순서

들어가며: 고전문학 '향유'와 '교육'의 간극에 관하여

- ① 현황: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과 몇 가지 딜레마
 - ② 진단: 고전문학사 경계의 확장과 방법론의 전환 요청
 - ③ 제언: AI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쓰기로서 데이터 편찬
- 나오며: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근래 강단에서 보이는 풍경과 마주하며 드는 생각들

국내외를 불문하고 K-드라마, K-게임,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전근대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 욕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보고 한복을 입고 궁궐을 체험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일상적 소비 문화로 자리한 지도,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으로서 전근대 문화에 대한 소비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경계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는 반면, 그들 사이에 전근대 문헌을 읽고 쓰는 문화는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령 《금오신화》와 같은 고전을 자발적으로 읽는 학생과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한문학사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 합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유관 전공의 다른 선생님들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입니다.

고전문학 자료에서 원천 리소스를 차용한 K-콘텐츠에 대한 소비 문화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고전문학 원전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과 강단에서 문화에 관해 배우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간극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지금의 고전문학사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순서

들어가며: 고전문학 ‘향유’와 ‘교육’의 간극에 관하여

① 현황: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과 몇 가지 딜레마

② 진단: 고전문학사 경계의 확장과 방법론의 전환 요청

③ 제언: AI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쓰기로서 데이터 편찬

나오며: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근래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특이점이라 할 만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가지를 이야기해볼 있겠으나
3가지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겠고, ‘맥락’의 문제가 있겠고,
‘민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래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특이점이라 할 만한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고전문학은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문을 매체로 생산되고 유통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를 읽어낼 수 있는 학습자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자·한문 교육의 공백은 단순히 어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전 텍스트를 접하는 통로를 막는 근본적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래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특이점이라 할 만한 점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맥락'의 문제입니다.

풍부한 콘텐츠를 통해 전근대의 문화적 요소를 다채롭게 접하는 현대이다 보니, 작품과 관련된 역사·사회·문화적 맥락 이해에 대한 요구가 기본적으로 커지고, 이에 따라 텍스트에만 집중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을 지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래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특이점이라 할 만한 점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민족'의 문제입니다.

근래 외국계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사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민족적 관점에서의 기존 문학사를 낯설게 만들고, 동시에 문학사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순서

들어가며: 고전문학 ‘향유’와 ‘교육’의 간극에 관하여

① 현황: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과 몇 가지 딜레마

② 진단: 고전문학사 경계의 확장과 방법론의 전환 요청

③ 제언: AI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쓰기로서 데이터 편찬

나오며: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기: 고전문학사의 외연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

앞서의 문제들은 표면상 각기 다른 차원의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의 차원에서 짚어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기로,
고전문학사의 경계를 확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기: 고전문학사의 외연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

첫 번째는, '글로벌'의 차원입니다.

동아시아 문학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민족문학사'의 서술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 한국 한문학이 동아시아 문화권 내의 상호 참조와 변용의 산물로 수용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작품'과 '작가'를 고립적으로 배치하는 문학사 기술이 아니라, '작품'들과 '작가'들 사이의 다채로운 연결 고리를 정리할 수 있는 '관계(Relationship)' 중심의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기: 고전문학사의 외연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

두 번째는, ‘콘텐츠’의 차원입니다.

원전 텍스트에서 파생된 다양한 변용 텍스트(드라마, 웹툰, 게임 등)를 교육의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의 권위를 해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전을 매개한 문학사 서술의 맥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고전문학사를 대상으로 하되 유관 콘텐츠를 매개하는 다층적 텍스트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기: 고전문학사의 외연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

세 번째는, ‘디지털’의 차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하이퍼텍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지식은 하이퍼텍스트의 속성을 지니기에, 선형적 글쓰기 안에 고정되지 않고, 비선형적 연결망에 기초한 쿼리(query)를 통해 탐색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학사 서술은 문학사와 관련된 다채로운 지식을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문학사 지식의 데이터 모델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야기 순서

들어가며: 고전문학 ‘향유’와 ‘교육’의 간극에 관하여

① 현황: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과 몇 가지 딜레마

② 진단: 고전문학사 경계의 확장과 방법론의 전환 요청

③ 제언: AI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쓰기로서 데이터 편찬

나오며: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데이터 기술(data description)에 기초한 고전문학사 교육의 필요성

텍스트(Text) 읽고.쓰기에서 데이터(Data) 편찬.활용으로

기존의 고전문학사 서술은 ‘작품’을 최소 단위로 삼아 이를 통사적(通史的) 차원에서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치 텍스트(Text)를 직조하듯이 선형적으로(linearly) 문학사를 엮어내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학사의 기초 자원을 텍스트에서 데이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선형적 직조에서 벗어나 문학사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지식 요소들을 비선형적 맥락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라 하겠습니다. 작가, 작품, 등장인물, 사건, 장소, 전고(典故) 등이 각각의 개체로 추출되고, 그 개체들 사이의 영향, 계승, 변용, 참고 등 복잡한 관계들(relationships)이 데이터로 기술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문학사 기술(description)에 있어서 컴퓨터 기술(technology)의 적용’ 정도로 본다면 그러한 시도 이면에 놓인 실체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정전인가?”에서, “이 작품은 다른 지식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로 관점의 전환이 생겨나고, 이는 곧 문학사의 인식론적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기술(data description)에 기초한 고전문학사 교육의 필요성

배경 지식 없이 데이터를 편찬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학사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편찬할 수 있을까?

정전에 기초한 지식 전달은 기본적으로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는 명제처럼, 문학사에서 반드시 기억되고 재현되어야 할 어떠한 지식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데이터 편찬에 기초한 문학사 교육은 오히려 ‘출발점’으로서 그러한 지식들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맥락에서 그 명제를 생산했는가?”

“그 명제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 또는 연구자는 없었는가?”

“그 명제가 상식으로 자리잡은 이후 고전소설사 서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데이터 기술(data description)에 기초한 고전문학사 교육의 필요성

배경 지식 없이 데이터를 편찬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일한 지식을, ‘종착점’으로서 습득하는 것과 달리 ‘출발점’으로서 탐색하는 경험은,
고정된 명제로서 해당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과 관련된 맥락과 근거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문학사를 구성하는 논리에까지 가 닿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전의 위상을 고정하는 것으로서 문학사가 아니라, 정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로서,
문학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데이터 편찬에 기초한 문학사 교육의 지향이라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술(data description)에 기초한 고전문학사 교육의 필요성

데이터 편찬에 기초한 문학사 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수자는 학생들이 데이터 편찬자로서 의미 있는 문학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질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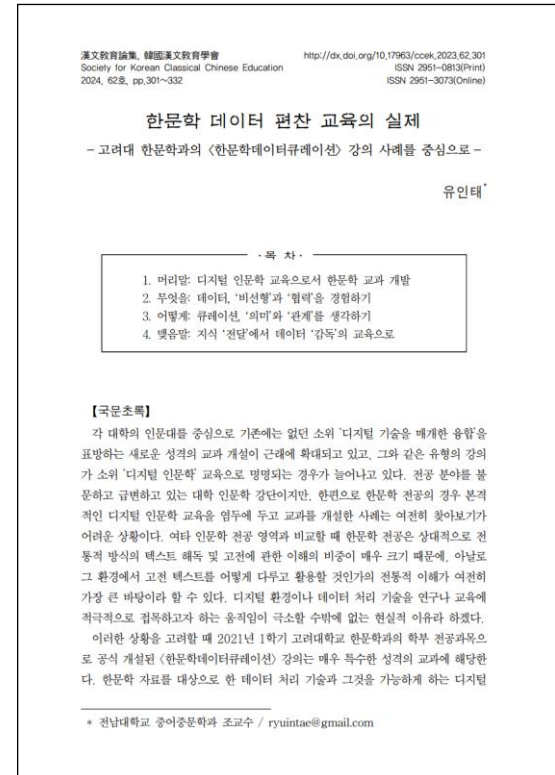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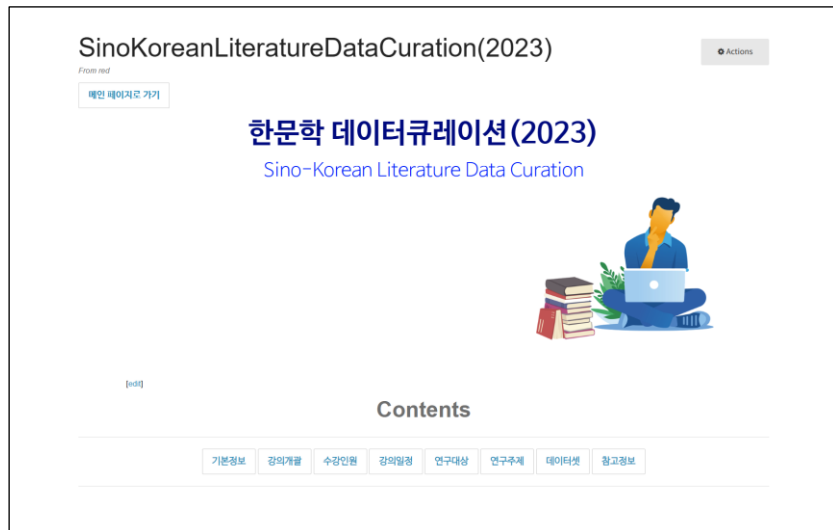
“그동안 이 작품들이 왜 함께 논의되어 왔는가?”
“어떤 질문이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인가?”

문학사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감식안(鑑識眼), 즉 ‘문학사적 안목’을 수강자가 능동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고: 데이터 기반 고전문학사 교육의 실제 사례로서 한문학사 강의

학생들과 함께 정조대의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를 데이터로 탐구한 강의

[https://dh.aks.ac.kr/~red/wiki/index.php/SinoKoreanLiteratureDataCuration\(2023\)](https://dh.aks.ac.kr/~red/wiki/index.php/SinoKoreanLiteratureDataCuration(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3098636>

이야기 순서

들어가며: 고전문학 ‘향유’와 ‘교육’의 간극에 관하여

① 현황: 고전문학사 교육의 현장과 몇 가지 딜레마

② 진단: 고전문학사 경계의 확장과 방법론의 전환 요청

③ 제언: AI 시대의 새로운 문학사 쓰기로서 데이터 편찬

나오며: ‘정답’의 문학사에서 ‘질문’의 문학사로

데이터: 정전의 '해체'가 아니라 정전의 '활용'을 위한 단서

'데이터(data)'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데이터 기반 고전문학사 서술은 고전문학의 정전을 해체하거나 고전문학사의 기존 지식 체계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문학사의 지식을 '완성된 정답의 체계'가 아니라 '질문 생성의 인프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고정된 지식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활물活物로서, 문학사를 인식한다면,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어 데이터로 문학사를 재구성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찰흙 빚기로서의 글쓰기와 레고 조립으로서 데이터에 관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일종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지는 배경에는, '글쓰기'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원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월터 옹Walter J. Ong과 같은 학자는 테크놀로지로서 글쓰기의 이러한 지점을 '내면화된 어떠한 정신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인문학 연구는 텍스트를 읽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읽고 쓰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 리터러시literacy가 주된 요소로 개입하게 되면, 더 이상 인문학이 아니라는 생각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을 따를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일련의 접근은,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용되기 어려우며 그저 콘텐츠 가공을 위한 절차 정도로 여겨질 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손으로 직접 찰흙을 다루는 것만을 조형 활동이라 여기며, 레고와 같은 기성 조립 블록을 다루는 것은 조형 활동으로 보지 않는 입장과 유사하다. 예컨대 그와 같은 입장에 설 경우, 흙의 질감을 손끝에서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곧 원초적 단계에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성품으로서 블록 조립의 결과물은 또 다른 기성품의 일종일 수밖에 없으며, 자기만의 온전한 조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이해와 대상을 다루는 과정 그리고 대상을 가공한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찰흙 빚기의 온전함과 충실함에 비하면 레고 조립은 무언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레고 조립이 조형 활동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전혀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레고 조립은 분해와 재조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원자료resource materials로서 흙을 직접 다루며 완결된 조형을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직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성 블록block 사이의 조립 가능성을 토대로 최선의 조형을 디자인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블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블록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써 볼 때 찰흙 빚기는 자기만의 온전한 조형을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손 댈 것 없는 완결을 얻는 것이지만, 레고 조립은 완결이란 개념 없이 언제든지 분해해서 다른 형태로 블록을 재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묘미가 있다.

참고 문헌

- 김흥규, 「고전문학·현대문학의 통합과 새로운 교육과정」, 『한국어와 문화』1,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7, 99~106쪽.
- 엄태웅, 「이본의 존재와 고전서사문학사 서술, 고전서사문학 교육」,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7,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소, 2021, 185~218쪽.
- 오윤주, 「시민교육으로서의 문학사 교육 연구 - 학습자 주도성(student agency)을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75,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85~113쪽.
- 유인태, 「한문학 데이터 편찬 교육의 실제 -고려대 한문학과와의 <한문학데이터큐레이션>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문교육논집』62, 한국한문교육학회, 2024, 301~332쪽.
- 이민희, 「고전문학사 서술과 문학사 교육의 거리」, 『온지논총』63, 온지학회, 2020, 77~120쪽.
- 이상일, 「근대 전환기 고전소설의 문화적 쇠퇴 요인 고찰 -문학사 교육의 관점에서-」, 『고전문학과 교육』5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4, 49~80쪽.
- 이정원, 「고전문학 교육의 위기와 변화 방향」, 『국어국문학』200, 국어국문학회, 2022, 29~69쪽.
- 전기화, 「고전소설콘텐츠 담론 검토와 그 비판적 계승에 관한 시론」, 『민족문화연구』10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4, 347~371쪽.
- 조용호, 「당위와 이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지방대학에서 고전문학 가르치기」, 『한국고전연구』6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5~37쪽.